

'아쉬움' 좌절이 아닌 '커다란 성과'

LPGA 투어 에비앙 챔피언십 우승자 전인지 일본·한국 연이어 열리는 메이저 대회 2연패 목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새 역사를 쓴 전인지(22·하이트진로)가 환한 미소를 안고 고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올 시즌 LPGA 투어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최종합계 21언더파 283타로 우승했다. 2위 그룹과는 4타차. 그가 올해 이룬 첫 슬리아자 투어 데뷔 후 얻은 첫 우승이다. 전인지는 올 시즌 LPGA 투어에서 준우승만 3차례 했다. 3위도 3번(코티즈 골프 챔피언십·미어 LPGA 클래식·캐네디언 퍼시픽 위민스 오픈)이나 했지만 늘 우승 문턱에서 좌절했다. 전 세계 배어난 골퍼들 사이에서 2위를 하는 것도 분명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눈 앞에서 아쉽게 우승을 놓친 선수는 오죽했을까. 하지만 그는 이 '아쉬움'을 좌절이 아닌 '커다란 성과'로 봤다. 전인지는 귀국 이후 가진 인터뷰에서 "올 시즌 2등을 3번, 3등을 3번씩 하면서 우승을 위한 발판을 만들어왔다.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스스로도 언젠가는 우승이 나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 도중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이유에 대해 "웃으면서 플레이하는 것이 내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렇게 경기를 하면 더 좋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프로 생활 하면서 느꼈던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소를 짓는 것이 골프에 더 재미를 느끼게 한다. 특히 많은 팬과 호흡하면서 플레이한다는 데 감사한 마음이 들다 보니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미국 골프채널은 환하게 미소 짓는 전인지의 사진과 함께 "전인지의 미소는 공식적인 여자 골프 올해의 미소"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어느덧 전인지는 세계랭킹을 3위로 끌어올리며 한국 선수 중 가장 순위가 높은 선수가 됐다. 올해 LPGA 투어 신인왕 타이틀을 예약한 전인지는 더 큰 미래를 꿈꾸고 있다. 그는 스스로를 '꽃 봉우리'로 표현하며 "아직 내 인생의 꽃은 피지 않았다고 했다. 가장 가까운 목표는 일본과 한국에서 연이어 열리는 메이저 대회 2연패다. 그는 지난해 일본 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일본여자오픈과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메이저 대회인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안았다. 4년 뒤에는 올림픽 금메달을 노린다. 그는 "올해에는 올림픽 참가가 최대 목표였지만 결과가 실망스러웠다"며 "올림픽에 다녀오니 금메달에 대한 목표가 생겼다. 4년 뒤 또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금메달을 깨물어보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김민근기자



LPGA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최소타로 우승을 차지한 전인지 선수가 지난 20일 오후 우승컵을 들고 인천공항에 귀국하고 있다.



한국 여자아마 골프 대표팀, 세계선수권 우승

박현경(강열여고), 최혜진(화산여고), 박민재(보영여고)로 구성된 한국 여자 골프 아마추어 대표팀이 지난 18일(한국 시간) 멕시코 리베리아 마야의 마야코나 엘 카말레온 골프장에서 열린 여자부 대회 마지막 날 8언더파를 기록하며, 최종합계 29언더파 547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여자 골프대표팀은 27회째를 맞는 세계 여자 아마추어골프 팀 선수권대회에서 4번째 정상에 올랐으며, 이번 대회에서 2위를 기록한 스위스를 무려 21타차로 따돌리며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지난 1988년 미국 대표팀의 최다 타수차 우승과 타이 기록이다. 전라북도골프협회 강종구 회장은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박현경 선수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며 아마추어 대회에서 꾸준한 실력을 쌓아서 프로로 전향 후에도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다음 달에 충남에서 열리는 제97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박현경 선수를 주축으로 전라북도 선수단의 선전을 다짐했다. /김민근기자

전라북도 여성 생활체육대회 내일 개최

전라북도체육회가 여성들의 체육활동지원 확대 및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한 2016 전라북도 여성 생활체육대회 가 내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전주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14개 시·군 여성 체육 동호인 1,700여명이 골프, 등산, 배구, 체조, 피구, 줄다리기 단체줄넘기 등 7개 종목에 참가해 그 동안 갈고 닦은 기량과 우연편위를 선보이며 친목과 화합의 시간을 갖는다. 전라북도체육회 류창욱 지원육성처장은 "여성생활체육대회는 전북체육회 역사상 처음 개최되는 대회로서 여성들의 체육활동 지원확대를 위해 큰 기여를 할 것이다"며 "승패를 떠나 팀원간의 단합과 협동심을 여실히 보여줄 수 있는 여성체육인들의 즐거운 한마당 잔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성주건설 슬러거, 도지사배 생활체육 야구대회 우승

가장 권위 있는 생활체육 야구 대회중 하나인 제20회 도지사배 생활체육 야구대회에서 성주건설 슬러거 팀이 토요부팀으로는 최초로 대회 우승컵을 차지했다. 지난 10일까지 임실과 정읍 일원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에 참가한 성주건설 슬러거는 뛰어난 실력과 단결된 팀워크를 바탕으로 총경 가디언스와 정읍 블루스카이, 전주 영화호텔 등 쟁쟁한 강팀들을 물리치고 정상에 등극했다. 대회 우승을 차지한 성주건설 슬러거는 중요 개인타이틀도 대부분 석권해 기쁨을 더했다. 전문기 선수가 최우수상선수상을 차지한데 이어 수훈상과 감독상을 이성주 단장과 임대훈 감독이 각각 차지해 명

실상부한 대회 최고의 팀으로 거듭났다. 성주건설 슬러거가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에는 김춘길 회장과 이성주 단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임대훈 감독의 리더십 그리고 회원들의 야구에 대한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물로 보이고 있다. 팀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성주 단장은 "우선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는 김춘길 회장과 항상 따뜻한 리더십으로 팀을 이끄는 임대훈 감독님 그리고 항상 노력하는 회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첫 우승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노력해 도내 최고의 생활체육 야구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우승 차지한 성주건설 슬러거는 최근 엘리트 스포츠와 생활체육이 하나로 접



목되고 있는 가운데 생활체육의 올바른 활동이 보여주는 모범사례로 꼽히는 계기가 됐다. /김민근기자

일본프로축구 J리그 내년부터 단일리그제 운영

일본프로축구인 J리그가 이르면 내년부터 단일리그제로 운영된다. 21일 스포츠초치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J리그는 20일 이사회를 열고 단일리그제 전환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1994년 출범한 J리그는 2004년까지 전후반기로 나뉘어 시즌을 진행했다. 2005년 단일리그제를 도입했지만 중계권료 저하 등을 이유로 지난해 지금의 스테이지제로 회귀했다. J리그는 지난 7월 영국 퍼퓸그룹과 10년 간 총액 2100억원(약 2조3000억원)짜리 초대형 중계권 계약을 체결했다. 수익에 집착할 이유가 사라지면서 J리그는 교육자책으로 택했던 전후기리그제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 J리그는 다음 달 이사회를 통해 단일리그제 회귀를 결정할 예정이다. 큰 반대 의견이 없다면 당장 내년부터 단일리그제가 선보일 가능성도 있다. /김민근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공동발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